「실록」속 불교사료 한데 모은다

동국대 불문연 「역주 조선왕조 …」 3월초 첫선, 「한영불교사전」도 발간

조선왕조 실록에 나타난 불교관련 기사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 번역된다.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記事) 역주(譯註)작업'과 '한영불교사전 발간' 사업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 의해 본격화 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은 지난해 7월부터 역주작업을 시작, 증의(證義) 및 윤문을 거쳐 다음달 초에 〈역주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 제1권 을 펴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자료수집 및 기획단계에 들어가 표제어 선정 및 카드작성을 완료하고 초고 집필에 들어가는 〈한영불교사전(Korean-English Buddhist Dictionary)〉 발간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불교문화연구원이 지난해 6월부터 조선불교 연구의 기초자료집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기사 역주작업'은 그간 불교관계 기사가 방대한 왕조실록 가운데 산재해 있어서 실제 연구자에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할 때 불교학 연구의 중요한 기본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불교학의 국제화와 세계 전파를 위해 불교문화연구원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불교전적의 영역화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집으로서 기획된 〈한영불교사전〉 발간계획도 세계불교와의 국제적 교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주목되고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의 불교관계 기사를 발췌 역주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선왕조실록 불교관계 기사 역주작업'은 완전 한글 번역을 방침으로 98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편집 배열은 조선왕조실록의 순서에 따르고, 번역문은 쉽고 부드러운 현대문으로 하면서도 주석은 정확한 출전과 해석을 달아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도록 했고, 연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종합 색인을 별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란 것이 권탄준 상임연구원의 설명.

한편, 〈한영불교사전〉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김용표 상임연구원은 "불교 일반용어의 영역에 있어서 산스크리트, 팔리, 한자어 등의 원의에 가까운 어휘를 선택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히면서, "이 작업은 기존 불교용어의 영역(英譯)이 서구식 격의(格義)불교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96년 12월에 발간될 〈한영불교사전〉의 특색은 무엇보다도 한국불교문화에 관련된 용어의 영역과 그 해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서윤길 원장은 "총 3억1천9백71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연구원의 2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켜 불교학 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학' 19집 발간 '원측' 등 논문 13편 실어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는 최근 〈한국불교학〉 제19집을 발간했다.

이번 논집에는 당나라 서명사(西明寺)의 원측과 동명이인인 불국사 원측화상의 존재를 밝힌 「불국사의 화엄법사 원측에 대하여」(김영태)와, 불교의 제1계율이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영향을 탐색한 「간디의 윤리학에 끼친 불교의 영향」(김선근), 조선불교청년회의 창립, 활동, 침체와 재기에 이르는 제 문제를 분석해 일제의 사찰정책에 대항한 한국불교계의 극복의지를 정리한 「조선불교청년회의 사적 고찰」(김광식) 등 총 13편의 논문이 실려있다.

◇해인사 퇴설당 전경

해 인 사

春秋多佳日(춘추다가일)
義理爲豊年(의리위풍년)
精聽魚讀月(정청어독월)
笑對鳥談天(소대조담천)
雲衣不待蠶(운의불대잠)
禪宮寧須稼(선실영수가)
石鉢收雲液(석발수운액)

춘추로 좋은 날 많더니
의리(義理)의 풍년 들었네.
고요한 밤 고기가 달 읽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이 게송은 경허스님이 지은 것이다. 또 퇴설당의 주련도 스님의 친필로 전해지고 있다. 경허스님은 1899년 바로 이 퇴설당에서 동수정혜동생도솔동성불과계(同修定慧同生兜率同成佛果契)를 결사했었다.

퇴설당의 최초창건은 언제인지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1817년 성안(聖岸)대사가 중건한 이래 해인사의 선방으로 쓰여 왔다가 1983년부터는 총림 방장실로 사용됐다. 전통이 있는 선원에서 도솔계가 결사된 것은 깊이 생각해 볼 과제이기도 하다. 경허스님의 체취가 남아 있는 퇴설당에서 93년 11월 성철 큰 스님이 입적했던 점도 특기할 사실이다.

〈안동 경안중학교 교사〉

자연과의 조화 노래한 경허 선시

웃으며 새와 천문(天文)을 이야기 하네.
누더기면 그만인걸 누에칠 시기 기다리지 않네.
선탕에서 어찌 농사는 바라는가?
돌 바루에 운액(雲液)을 거두리.

해 설 선의 경지에 몰입한 기쁨을 나타낸 게송이다. 선정에 몰입된 기쁨을 자연과의 조화로 나타낸 선시는 많다. 이 게송에서의 경우도 물고기 달 새 구름 등을 두루 대입해 확트인 선열(禪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절의 운액(雲液)은 술을 가르키는 다른 말이다.

다양한 주제 다뤄

94 후기 불교학 박사논문

94학년도 후반기 불교학 관련 박사학위 논문들은 예년에 비해 다양한 주제로 인접학문과의 교류를 시도하는 등 교학(敎學)과 인물 중심의 불교학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양한 연구방향을 보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사 논문들은 비교종교학 3편, 경전연구 1편, 인물연구 2편, 불교미술 2편, 불교사학 2편, 불교사회복지학 1편으로 고른 연구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불교 관련 석사학위 논문은 △〈법화경〉의 방편사상에 대한 연구/최은영(고려대) △미륵사상과 삼국의 사회적 이상 형성에 관한 연구/옥경호(서울대) 등 모두 40여편 이상이 나온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 94 후기 불교학 박사 논문>

분 류	논 문 제 목	학위취득자(대학)
비교종교학	가우다빠다의 불생설과 용수의 종도설	문을식(동국대)
	불교 권화사상의 한국적 전개와 대순사상 연구	윤기봉(동국대)
	기화(己和)의 사상에 관한 연구	양현규(전북대)
경전연구	열반경의 계율사상 연구	신성현(동국대)
인물연구	세친사상의 연구:〈석궤론〉을 중심으로	이종철(동경대)
	태현의 유식철학 연구	방 인(서울대)
불교미술	17세기 불전의 장엄에 관한 연구	이강근(동국대)
	경주지역 신라조각의 미의식 연구	이순자(동국대)
불교사	불교와 인도고대국가 성립에 관한 연구	박금표(숙명여대)
	신라법상종 연구	김남윤(서울대)
불교사회복지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	이혜숙(동국대)

세친 '석궤론' 최초로 조명

유식학의 연기관 · 대승사상 특징 밝혀

◇이종철씨

이종철씨 박사논문

유식학의 창도자 세친(320~400)의 사상적 변모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연구돼야 할 논서로 지적돼 온 〈석궤론(釋軌論)〉을 연구한 논문이 국내외 최초로 나왔다.

일본 동경대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박사학위논문으로 통과된 이종철씨의 「세친사상의 연구:〈석궤론〉을 중심으로」는 그간 〈석궤론〉의 산스크리트원본과 한역본이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전혀 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씨의 논문은 티벳대장경 가운데 덕혜(德慧;6세기)가 저술한 〈석궤론〉에 대한 주석서 〈석궤론주〉의 티벳어역을 토대로 산스크리트원문을 복원함으로써 세친사상의 전개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것.

이씨는 불교의 초기경전인 〈아함경〉은 물론 대승경전까지도 불설(佛說)로서 인정하기 위한 해석규범을 규정한 세친의 초기저술 〈석궤론〉은 〈반야경〉 등의 대승경전을 밀의(密意)라는 해석학적 관점에 입각해 불설로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또한 1950년대에 오스트리아의 후라우와르너(E. Frauwallner) 등이 주장한 '〈아비달마구사론〉의 저자인 세친과 〈중변분별론〉의 저자인 고세친(古世親)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세친2인설」을 문헌학적 검토를 통해 비판했다. 이씨는 불설의 본질적인 특징인 '연기'에 관한 세친의 어의(語義)해석을 밝히고, 그의 연기관의 특색과 불교사상사적 의의를 해명했다.

관음 · 지장기도에 대해 한 말씀을

문 스님께서는 관음정근이나 지장기도에 대해서는 한말씀도 언급하지 않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서울 서초구 잠원동 · 김정례)

답 '부처'란 이름 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 있는 것을 '부처'라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 부처님은 없는 게 됩니다. '부처님을 우러러 모셔야 한다'는 말 속에 부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일체를 포함하기에 부처님이라 이름지은 것이고 부처님은 일체를 포함한 하나이기에 부처님인 것입니다. 찰나로 나투면서 일체에 응한다면 어느 때를 고정해서 '무엇이다'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처님은 관세음도 되고 아촉도 되고 아미타도 되고 지장도 되고 약사도 되고 칠성 산신 용신 지신 신중… 어느 것 하나 아니 되는 게 없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찰나로 돌아가는 살림살이를 하는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노릇하고 때로는 아들 노릇 남편 노릇 형 노릇 사위 노릇도 하고 금방 친구가 되었다가 돌아서면 동료가 되고 선배 후배가 되기도 하는데 어느 노릇할 때의 나를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 한 분 모셔놓은 것으로 일체가 다 포함됩니다. 물론 부처님 한 분 불상을 모셔 놓은 것도 중생을 위한 방편입니다만 부처님이 곧 일체인 줄 알면 모셔놓은 부처님이 그대로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요, 내 몸이요, 그대로 관음이요 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이에겐 한 분을 모셔야 마음을 한데 모아 혼란스럽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석가모니 부처님 따로 찾고, 관세음보살 따로 찾고, 지장보살 따로 찾으면 따로따로 둘이 되고 셋이되니 일체가 한마음인 도리를 놓치게 됩니다. '따로따로'라면 벌써 나와 부처가 둘이 되기 십상이니 타력으로 흐를 염려가 있습니다.

참다운 방생이란 무엇인지요

문 요즘에 와서 물고기방생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각 종단에서도 방생의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만 그러면 참다운 방생은 무엇인지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 허의참)

답 예전엔 큰 비가 올때면 붕어나 미꾸라지들이 마당이나 길가에서 뒹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님네들이 그걸 주워다 물에 놓아주곤 했는데 그같은 생명존중이 하나의 의식으로 정착된 게 물고기 방생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도 엄연한 방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생한답시고 잘 노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다시 풀어주는 의식이라면 그것은 놀부방생이지 참다운 방생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 고향에서 오순도순 잘 사는 사람들을 징용 나가라고 잡아갔다가 해방이 되어서 풀어 놓아준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이역만리에서 고향을 그리워 눈물짓는 사람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십시요. 풀어주었다 해서 그게 방생이겠습니까.

진정한 방생은 이웃과의 나눔이요 생명사랑입니다. 먹지못해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게 진짜 방생입니다. 물론 무주상이어야 공덕이 수승하겠지요. 뿐만아니라 일상 생활 중에 항시 내 욕심 채울 생각을 버리고 나와 이웃, 심지어 자연까지도 하나라는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방생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놀부방생은 결코 방생이 아닙니다. 흥부방생이 방생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물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천도재를 못지내 마음이 편찮아

문 어느 사찰에서 천도재를 지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만 살림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일피일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늘 마음 한구석이 편칠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부산 남구 광안2동 · 이영순)

답 자식이 물에 빠지게 되면 부모는 자신이 빠져죽는 한이 있더라도 뛰어들어 건지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없는 사랑입니다. 위로 조상님 생각하기를 내리 사랑과 같이 한다면 부모 · 조상과 나는 그대로 한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형식이야 대수이겠습니까. 상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재를 올린다해도 형식에 그친다면 그것은 조상의 중생적 모습만 보고 조상님의 참 근본인 부처자리를 보지 못한 것이니 오히려 조상님들이 부끄럽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조상이, 나와 부처가 하나인 줄 안다면 아니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지닌다면 재를 지낼 때 시주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마음의 떡 그것만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으시다니 찰떡 한덩이 둥그렇게 빚어놓고 초 · 향 · 맑은 물 한대접으로 지낸들 마음이 문제이지 적다 많다 할 일이 아닙니다.

마음 간절히 안으로 고하면서 떡 한덩이 올려 놓으면 그 떡 공양으로 일체 만물만생이 다 먹고도 되남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주물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설사 촛불 하나 못 밝혔다 해도 마음의 촛불을 밝힐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천도재를 하면서도 제도해 주는 부처님이나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또 그것을 받는 조상의 마음이 한자리인 줄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지 못하는 만큼 거리는 멀어 집니다.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 불교의 대중화

대 원 불교대학

• 2년제 야간, 전문과정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선 종 사 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 전 개 설
	2학기	불 교 입 문	화 엄 사 상	밀 교 사 상	법 화 사 상	정 토 사 상
2학년	1학기	의 식 이 론	반 야 사 상	포교방법론	불 교 미 술	유 식 철 학
	2학기	의 식 실 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 및 종교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